

불교연극 두편 무대에 선다

'아노마'로 더위 씻고 '철안뱃다'로 가을맞이



8월과 10월 잇달아 불교연극 두편이 무대에 올려져 연극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사진은 연극 '아노마'의 리하설 장면.

아노마 경허스님 득도·기행 조영 9~14일 국립극장 소극장

철안뱃다 인간복제의 종말 연출 극단 유시어터 전용극장서

불교를 소재로 한 연극이 준비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갑다. 짐작된 불교 연극계, 하나 나오기도 가...

국립극단(단장 정상철)은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마련해 온 '청소년을 위한 특별 공연 시리즈' 세 번째 무대로 '98 창작회극 공모 당선작'인 '아노마' (송미숙, 황동근연출)을 9~14일 국립극장 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강의 이름이 '승고하다'는 의미를 갖고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강을 건넌 후 스스로 사발함으로써 인간이 갖고있는 번뇌와 고통을 끊는 비장함을 보인다. 즉 '아노마'는 속세의 인연을 끊는 첫 관문이다.

이 연극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한다. 연극인 부부 성환과 미우 그리고 정담스님. 남편의 암선고에 괴로워 하는 미우가 정담스님을 찾아가 출가를 원하지만 스님은 고통을 피하지 말 것을 조언한다. 한편 말기 암환자로 3개월의 시한부 삶을 남겨둔 성환은 경허스님의 말을 따라 마지막 후혼을 불사른다. 결국 총연습날 성환은 경허스...

남을 이해하며 스님의 삶을 따라 '아노마'를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성환의 부인 미우도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안고 출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연극에서 줄음을 이기기 위해 턱에 송곳을 댄 채 수행하는 모습과 오도 후 첫 법회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 법문 하는 장면 등 경허스님의 전설적인 모습은 관객들에게 흥미를 자아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뿔잇' 등 고전 문학류의 무게 있는 고전을 주로 발표하고 있는 극단 유시어터(대표 유인호)는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전용극장에서

'철안 뱃다'를 공연한다. 이 연극은 30대의 주목받는 극작가이자 연출자인 조광화씨가 유시어터의 상임연출자로서 처음 내놓는 작품. 특히 연극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미래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최근 인류사적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인간 복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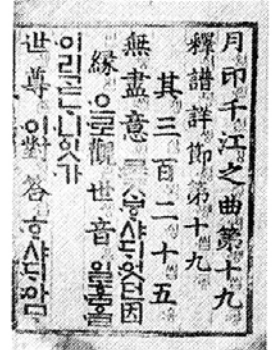
'99 서울연극제에 출품하는 '철안 뱃다'의 무대는 3000년상의 먼 미래. 석가모니의 생애중 사문유관을 통한 출가, 항마 성도, 석가족의 멸망을 미래 세계로 옮겨 재구성했다. 개체의 수명 연장과 종족의 세력 확장을 위해 복제 인간을 만들어 내지만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은 결국 인류의 종말을 불러 오게 한다는 내용의 '철안 뱃다'는 부처님...

이 설한 운회의 법칙속에서만 생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연출가 조광화씨는 "티벳의 지혜로운 수행자들은 평소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오히려 삶을 아름답게 고양시킨다"며 "인간의 편의를 위해 유전자 조작하고 복제인간을 만들 기술까지 지니게 됐지만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죽음을 경히 받아들이는 공생적 연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연출 의도를 털어놓았다. 10월 8일 공연을 앞둔 '철안뱃다'는 현재 탤런트 유인호씨를 비롯한 출연자 캐스팅을 마치고 24일부터 연습에 들어갔다. (02)3444-0651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월인석보 제19권 초간본 발견

한글 변천사 연구자료 고령 가야대 소장



1459년 세조가 간행한 우리나라 첫 국역대장경(월인석보) 가운데 제19권 초간본이 최초로 발견. 불교·서지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박물관 개관을 준비 중인 경북 고령 가야대(총장 이경희)의 소장 자료 정리에 참여했던 남권희교수(경북대·문화재전문위원)에 의해 발견됐다.

월인석보 제19권은 가로 22.5cm 세로 32.8cm 총 125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중 제6장이 없고 몇장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온전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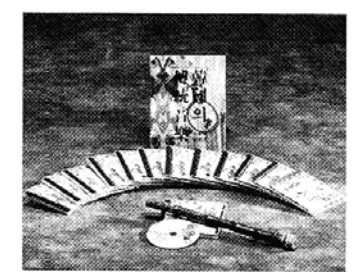
제19권을 현대어로 번역중인 가야대 서용규 교수(국어국문학)는 "제19권에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중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16수가 수록되어 있고 '가리사대'의 완형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어휘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한글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월인석보는 1459년 세조가 돌아가신 부모와 요절한 덕종의 국락왕생을 빌기 위해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수정·합편해 만든 것으로 당시 한글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석보상절'은 세종이 소현왕후의 국락왕생을 빌기 위해 아들인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편찬케 한 부처님일대기로 여기에는 지장경 아미타경 법화경 약사경의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또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해 '한개의 달이 일천강에 비치듯 부처님의 법이 사방세계에 두루 미친다'는 의미를 담아 몸소 지은 일종의 찬불가시다.

현재까지 월인석보는 초·중간본 18권만이 발견됐으며 모두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에따라 가야대는 문화재청에 보물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범패·민요·단가등 '전통음악' CD 출판

국악보급진흥회(회장 김호성)는 최근 범패 및 회심곡 등 불교음악과 민요, 단가 등 전통 국악을 수록한 CD 40장을 내놓았다. 안비취, 김소희 등 당대 명창과 국내 유수 국악인들의 공연 현장을 찾아가 명연주와 절창을 수록한 이번 음반은 크게 아악(6CD), 민속악(6CD), 성악(28CD)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아악은 합주·벌주·독주, 민속악은 합주·독주·산조, 성악은 범패·정가·회심곡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악보급진흥회는 "올해 안에 찬불가를 비롯해 범패 교성곡 등 불교 음악을 전문으로 담은 음반도 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격은 35만원. (02)735-0309 김주일 기자



한승구씨의 '구도여행 99'

한승구씨 '구도여행 99' 부산 부일갤러리 40여점 전시

전통을 기본으로 현대 불교미술의 전수자를 표방해온 한승구씨가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부일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한씨의 이번 전시회는 네 번째 개인전으로 '구도여행'을 주제로 한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작가는 "인간이 위대하다는 사실은 때때로 생명의 보수도 높은 정신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지만 또한 그 때문에 고뇌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인간의 몫으로 남아있다"면서 구도여행이 출가자의 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051)461-4558

문화 단신

문화재연구 30주년 기념사업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7일 특별기획전, 국제학술회담회 등 30주년 기념사업을 발표했다. '문화재연구 30년-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11월 10일부터 13일동안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실에서 개최되는 특별기획전은 유적조사 연구, 미술공예연구, 예능민속연구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 11월 17일부터 1주일동안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담회에는 일본·중국·러...

시아 학자등을 초청, '21세기와 문화재연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벌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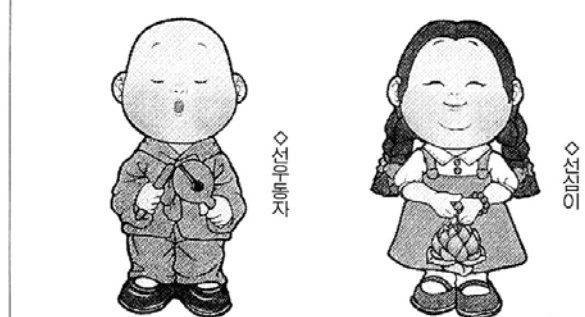
광주박물관 8월 임시휴관

국립광주박물관은 불교미술실 및 수장고 등이 들어 설 별관신축 마무리 공사로 이달말까지 한달동안 임시 휴관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각종 공사를 11월중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별관 신축 개관기념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 등을 선보이는 '불교미술품'전과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서문화협회(회장 이귀례)는 9월 18일 강화 정수사에 조선시대의 고승 합허득흥 스님(1376~1433)의 차시비를 세운다. 합허득흥 스님은 아름다운 차시(茶詩)를 많이 남긴 스님. 조선 초 어학이었던 대자사를 떠나, 맑은 물이 솟은 곳에 정수사를 세우고 수행과 다도에 정성을 기울였다. 이후 합허득흥 스님은 공덕산, 운악산 등 여러 산에서 수행한 뒤, 1433년 문경 봉암사에서 열반했다. 한국서문화협회 이귀례회장은 "오는 가을 정수사에 건립될 시비에 합허당 어록에서 발췌한 시를 새겨서 후학들의 거울로 삼았다"고 말했다. (02)701-0475

합허스님 茶詩碑 정수사에 세운다

합허스님 茶詩碑 정수사에 세운다. 한국서문화협회(회장 이귀례)는 9월 18일 강화 정수사에 조선시대의 고승 합허득흥 스님(1376~1433)의 차시비를 세운다. 합허득흥 스님은 아름다운 차시(茶詩)를 많이 남긴 스님. 조선 초 어학이었던 대자사를 떠나, 맑은 물이 솟은 곳에 정수사를 세우고 수행과 다도에 정성을 기울였다. 이후 합허득흥 스님은 공덕산, 운악산 등 여러 산에서 수행한 뒤, 1433년 문경 봉암산에서 열반했다. 한국서문화협회 이귀례회장은 "오는 가을 정수사에 건립될 시비에 합허당 어록에서 발췌한 시를 새겨서 후학들의 거울로 삼았다"고 말했다. (02)701-0475



선우 불교캐릭터 5종 개발

불교용품 제작업체인 '선우'는 불교의 대중화와 청소년, 어린이 포교를 위해 불교 캐릭터 5종을 개발했다. 우리에게 친근한 토속적인 새싹불자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선우동자'와 '선심이' 캐릭터는 목탁과 염주 그리고 연등을 든童子승과 소녀를 표현한 것. '불교를 홍보하고 신심을 키울 수 있는 캐릭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우동자는 새싹불자에게 친근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선심'은 익살스럽고 조금은 엉뚱한 모습으로 각각 표현됐다. 이 캐릭터는 8월 전후에 T-셔츠를 비롯한 종신, 인형, 문구류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선우' 대표 박영민씨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스님의 따뜻한 불성을 표현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불교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불교의 현대적 이미지를 포괄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998-7930 오종욱 기자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2. 학교연혁. 3. 특전.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5. 원서교부및문의처.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교육부 학력인정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1.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2. 졸업 후 중앙승가대학 입학 가능. 3.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8월 13일까지. 4.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8, FAX: 02)511-1080

중국최고국립한학대학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석사·박사과정 약간명 모집). 2. 학교 소개.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02)511-2026-8